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 : 율법, 믿음, 기도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A. 일반적 의미의 기도 - 1

1. 지금까지 논의 요약: 인간은 절망적 상황, 모든 선 결핍, 구원 방편 부재. 그러므로 구원위해 바깥으로 눈 돌려야함.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 우리 불쌍한 처지 대신 행복을, 우리 부족대신 부요를,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보물창고 여시고, 우리 온 신앙으로 그의 아들 묵상케, 우리 온 기대를 그 분에게만 두게, 우리 온 소망, 그 분께만 붙어 머무르도록 하심.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 열어 주시는 자들 마음으로 그 분 빛가운데서 빛 볼 수 있다.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A. 일반적 의미의 기도 - 2

우리 필요, 부족 무엇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 곧 아버지께
서 모든 부요한 은사 머무르게 하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
실 깨닫게 믿음으로 가르쳐 주심 (골 1:19; 요 1:16). 그 안에 넘
쳐 흐르는 샘에서 무엇이든 길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요청하
여 얻게 된다.

반면 하나님을 주인이요 모든 선한 것들 공급자이심 알고, 그가
구하라 초청하심 불구, 그에게 안 구하면, 이는 땅 속 보물 숨긴
곳 가르쳐 주는데도 무시 아무 유익 못 얻는 것 같다.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A. 일반적 의미의 기도 - 3

2. 올바른 기도

1) 자기 영광에 대한 모든 생각 버릴 것.

단 9:18-19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이름을 인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 인지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주 자신을 위해 하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A. 일반적 의미의 기도 - 4

2) 우리 불충분을 진정 자각, 그 분께 구하는 것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구할 것. 죄 용서 구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 인정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않는 것.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마 6:9) 기도할 때, 그 이름 거룩히 됨 열정적으로 기도.

기도는 우리 거만케 하는 것 아니고, 우리를 위대케 하는 것도 아님. 오직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자기 문제 털어놓듯, 하나님께 우리 곤경 고백 하는 것. 문제는 기도하게 하는 채찍.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A. 일반적 의미의 기도 - 5

3. 우리 필요 무엇인지 자각 후, 강력히 기도케 하시려 주신 두 가지 말씀:
1) 기도하라는 명령, 2) 구하는 바를 받을 것 확신케 하는 아버지 약속.

“찾으라” “내게 구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제 3 계명, “여호와 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 구하고, 모든 신뢰 돌림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라는 뜻. 그러므로 어떤 필요 있을 때, 그의 도움 찾지 않으면, 화 자초, 우상 세우는 일. 반면, 그를 찾고 찬양하면 위로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 받을 만한 존재 되고, 그 뜻 섬기는 줄 알게 되기 때문.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 7:7)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A. 일반적 의미의 기도 - 6

4. 하나님 약속 확실한 믿음으로 기다리면 의심없이 이루어질 것. 기도 자체가 공로나 가치 소유 앎기에, 기도 소망은 약속 근거.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한 믿음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베드로, 바울 같이 응답 받음. 기도하라는 명령과 응답 받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무장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 따라 응답. 명령 순종하고 약속 신뢰하는 자 기도응답.

하나님 약속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약 1:6).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A. 일반적 의미의 기도 - 7

주님께서 각 사람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 약속. 믿음 떠나 아무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언자, 중보자로 보내주셨다.

예수님 지도로 담대히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아버지께서 그를 거절 않으심같이, 중보자 함께 갈 때, 그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도 거절 않으심. 하나님 보좌는 위엄 보좌. 은혜 보좌.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 자비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는다.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A. 일반적 의미의 기도 - 8

5. 하나님께 부르짖는 규칙이 정해졌고, 그를 부르는 자가 들으심 받으리라는 약속 받았으니 그를 부르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라는 명령과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 생각하자 (요 14:13; 16:24). 바울 말대로 "하나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 (고후 1:20).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가도록 허락 받은 유일한 문, 누구든지, 이 길과 문 버리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과 문이 없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진노, 심판, 공포 외에 아무 것도 없는 자들 된다. 아버지께서 그를 머리와 인도자로 세우셨기에, 그를 저버리는 자들은 자기 지위 버리고 하나님 표지 뭉개려 발버둥치는 자들.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A. 일반적 의미의 기도- 9

6. 성인 기도 도움 얻고자 하는 기대 가져서 안된다. 기도 서로 부탁은 필요를 나누는 사랑 증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제로부터 데려가신 죽은 자들 사이에는 적용 안된다.

암브로스 말. “그리스도는 우리 입, 눈, 오른손. 그 통해 우리 자신 아버지께 드린다. 그가 개입 앓고서 우리나라 다른 성인들도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한다.”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A. 일반적 의미의 기도 - 10

7. 성인을 중보자 삼는 자는 그리스도 십자가 공허하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유일한 중보자” 칭호를 떼어 버리는 것.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A. 일반적 의미의 기도 - 11

8. 기도 두 부분: 간구와 감사.

간구로 우리 마음 소원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에게 영광 돌릴 것 구함.

감사로 우리 향하신 하나님 은혜 인정, 찬양 고백, 모든 좋은 것 그의 선하심에 돌린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시 50:15; 눅 18:1). 우리 빈곤 걱정 커서 거룩한 사람도 하나님께 탄식, 우리 공급자 찾을 충분 이유.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A. 일반적 의미의 기도 - 12

우리 큰 기적, 찬양과 감사 이유 충분. 우리 모든 소망과 부요, 하나님 안. 우리 자신 모든 소유, 하나님 축복.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탁, 결정. 사람 신뢰 계획, 생각, 실행, 하나님 뜻 상관않는 자 하나님 저주받은 자들 (사 30:1; 31:1).

우리 모든 일, 그 손에서 받되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야 겠다.

관대하심, 은택, 올바로 누리는 길은 계속 그를 찬양, 감사하는 길.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A. 일반적 의미의 기도 - 13

9. 바울 권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사람, 어느 때, 어떤 일, 만사 하나님께 기대, 모든 일로 그를 찬양, 자기 소원 하나님께 올리기 바라심.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찬양, 그에게 간구하도록 다함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하심.

기도 지속은 개인기도 문제. 공기도는 “**적당하고 질서대로**” (고전 14:40). 공기도 장소, “성전” 정해져 있음. 말씀선포, 성례 함께 참여케 만들어짐.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A. 일반적 의미의 기도 - 14

10. 기도 목적 - 하나님 찬양, 그의 도움 간구 - 모두 마음 역사. 기도 본질은 마음. 기도 자체는 마음 찾으시는 분 (롬 8:27). 그리스도께서 기도 명령 주실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 우리 기도 듣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은밀히 기도 하라 명령 (마 6:6). 이 말은 우리 생각 내려놓고, 우리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라는 가르침.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A. 일반적 의미의 기도 - 15

11. 혀는 하나님 존영 선포하기 위해 창조된 것. 특별한 기능 공중기도에 있다. 신자들 모임에서, 한 목소리로, 한 성령 받아, 같은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A. 일반적 의미의 기도 - 16

12. 공중기도는 참석 전체 회중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13. 기도 형식 자체 (마 6:6ㄱ). 주기도문은 여섯 가지 간구로 구성. 첫 세 가지 특별히 하나님 영광, 다음 세 가지 간구는 우리 자신 문제와 관련.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1

첫째 간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4.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리스도 이름 제시됨. 그리스도께 합하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확신있게 부를까? 누가 하나님 아들 권세 부여 받을 수 있겠는가?

참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 형제로 주사, 그에게 속한 것들이 양자의 은혜로 우리 것 되게 하심. 우리가 이 축복 확실히 믿기만 하면 된다. 요한 1:12처럼, 하나님 독생자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주어짐. 하나님은 우리를 불신앙에서 해방시키심.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2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은 부모사랑보다 크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즐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눅 11:13).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방탕한 자식이지만, 그 분 자비에 우리 맡기기만 하면 그 분은 우리 아버지요, 모든 아버지 중 가장 선하고 친절 한 아버지되심.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3

15. 하나님은 “아버지”일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심. “나의”가 아니라 “우리”. 이 호칭은 우리가 한 아버지 자녀 됨을 보이고, 우리 가운데 형제 사랑이 중요함 가르침.

우리가 서로 돕기 원한다면, 우리 형제를 가장 선하신 “아버지 보살핌 아래 이끌어 주는 것보다 더 크게 그들 유익되게 할 수 없다.” --전도의 중요성 강조--

모든 기도는 주님 나라와 그 공동체 고려해야. 모든 가난한 자 필요 구제는 하나님 명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밀히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다른 사람들 필요 위해 기도.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4

16.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 첨가 (마 6:9). “하늘”이란 우리가 이 보다 더 묘하고 위엄있는 것 알지 못하기 때문. 첫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 6:9 이하)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5

17. 하나님 이름은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 모든 탁월성, 권세, 지혜, 의, 자비, 진리 함축. 하나님 이름 어느 곳에서나 거룩히 되기를 기도함.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6

둘째 간구: “*나라이 임하옵시며*”.

18.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 임하소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새신자들 날마나 그 백성에 보태사 그들이 모든 방법으로 그 영광 찬양하기 바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요한 은혜 베푸사 마침내 그 은혜로 살고 완전한 연합 이루도록 바람. 동시 그의 빛, 진리 밝히 비취어, 사단과 그 오류 소멸되기 바라는 것. 모든 것 가운데 모두 되시는 하나님만 높임.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훼파될 것임 (고전 15:28).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7

셋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10).

20. 이 간구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 뜻 따라 조성하시고 모든 결과 다스리시기를, 또 창조물을 그의 결정 따라 사용하시고, 모든 존재들을 그 자신에게 복종시키시기를 구함. 이 간구로 우리는 모든 욕망 버리고, 모든 애정을 주님께 향하도록 조정,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되,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작정대로 해주시기를 바램. 하나님께서 새 정신과 새 마음 우리 속에 창조하시어, 우리 것 소멸하시기 바램. 순수하고 하나님 뜻 합치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욕구가 우리 속에 충돌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기도.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8

이 중보자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범상한 일이 아니었다. 곧 사람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 지옥의 상속자들을 천국의 상속자로 만드는 일이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지 않고서는, 그래서 우리의 것을 취하시고 그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서는, 또한 본성으로 그의 것을 은혜로 우리의 것 되게 하지 않고서는 누가 할 수 있었겠는가?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9

요약: 스스로 의지 아니라, 성령 의지 관철 기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르치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사랑하도록, 그를 노엽게 하는 일 우리가 싫어하고 혐오하게.

첫부분 결론: 주기도문 첫 세 부분 간구 때 우리 눈 앞에 하나님 영광 뚜렷이 나타나야 함. 자기이익 아무 것 기대말고, 우리 간구없어도 일어날 일이지만, 구하라 하심은 우리를 돕기 위하심. 최선 다해 하나님 영을 섬기는 종과 자녀로 합당한지, 하나님 영광 넓히 고자 하는 열정으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을 것”과 “그의 나라가 올 것”과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 않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며 그러한 자들이 받을 것은 혼란과 심판.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10

넷째 간구

22. 나머지 세 간구의 첫 부분. 나머지 세 간구는 우리 일 하나님께 부탁. 우리 필요를 도와주시도록.

넷째 간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 6:11)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11

23.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음식, 의복뿐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 평화가
 운데, 빵 먹을 수 있게. 이 간구로 하나님 섭리에 우리 의탁함은 먹이
 고, 자라게 하시고 보존하시도록. **가장 자비하신 아버지는 우리 육신
 조차 당신 보호 인도 아래 두심 마다 앓으심. 빵 한 조각, 물 한 방울,
 모든 것 그 분께 얻기 기대하는 믿음 훈련.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해져, 무엇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다가, 지나가는 인생 그림자가
 영원 불멸보다 더 큰 의미 될 위험에 빠짐!**

하나님 의지하고, 걱정 버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영생주심. 하
 나님께 이런 것 받고자 소망하며, 우리 믿음 훈련함은 매우 중대. 소
 망 없으면 세상염려 사람 뼈 속까지.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12

24. “일용할 양식”은 만족 모르는 욕망과 겉치레, 낭비 바라지 말고 필요한 것 충분하도록 매일 구해야 함.

굳은 확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필요 하시듯 내일도 실패치 않으실 것이라는 것.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시고 열매맺게 하시지 않는 한 아무 것도 우리 것 될 수 없음 알게 됨. 매일 그 날 양식 구하도록. 비록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작은 부분까지 매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것 될 수 없다.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13

어떤 자들 일용양식 만족 모르고 무한정 재물 헐떡이며, 어떤 사람은 재물 의지. 이런 자는 기도 드려도 하나님 조롱하는 것. 전자는 욕망 감추고 기도, 후자는 자기 생각 기도함때문. 일용양식을 “우리 것“이라 부름은 하나님 관대하심 나타냄. 우리 것 될 수 없는 것을 우리 것 삼아 주심. **우리 근면으로 얻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이라는 사실.**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14

다섯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
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 6:12).

25. 이 간구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없이 필요한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베풀어 지기 구함. 우리가 죄를 “빛”이라 부름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죄값을 빚지고 있기 때문. 이 빛은 하나님의 탕감으로 면제되는 길밖에 달리 만족시킬 방법 없다 (롬 3:23-24). 자유로운 탕감은 하나님 자비로부터 비롯.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15

그 분은 관대하게 빛 면제, 우리를 풀어주시고, 두 번 다시 그 빛 지불을 우리에게 요구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대속물로 아버지께 드린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 취하심 (롬 3:24). 그러므로 어떤 자들이 자기나 타인공로로 하나님 만족하셨다고 믿는다든지, 이런 만족 통해 사죄 대가 지불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이 자유로운 선물 결코 나누어 받을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찾는다면 이는 스스로 자기를 고발하는 것, 자기 스스로 자기 정죄 보증하는 것. 자기 공로, 만족 하나님께 아무리들이 밀더라도 이는 스스로 빛진 자임을 고백하는 일. 하나님 자비에 호소하기보다 하나님 공의심판 자초.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16

26.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용서가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들을 용서 하듯이” (마 6:12), 즉 행동으로 우리를 부당하게 취급했든, 말로 우리를 모욕했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해를 입힌 자들을 우리가 감싸주고 용서해 주듯, 우리에게도 이런 용서가 오기를 간구한다.

이 말은 허물이나 불법의 죄를 사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이런 권리는 하나님께만 속한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용서이다.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17

즉 우리 마음에서 분노나 증오, 복수심등을 기꺼이 내버리고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기억을 자발적으로 잊어 버리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는 자들이나 했던 자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도 우리 죄용서를 구할 수 없다.

우리 마음에 증오를 잔뜩 품고 우리 원수와 화해 회복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처럼 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 (마 7:12).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18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데 합당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덧붙여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 유념해야 한다.

오히려 이 말로 주님은 우리 연약한 믿음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 용서하실 때 우리가 그 용서 사실 확신할 수 있는 표시로 이 말씀 덧붙여 주심.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19

여섯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 6:13)

27. 유혹의 형태는 많고 다양. 하나님 법 어기도록 우리를 꾀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방자한 욕망, 마귀가 일으키는 악한 생각들. 마귀 간계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등을 돌리게 만들 때 유혹이 된다.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20

유혹들은 우로나 좌로나 어느 쪽에서도 온다 (잠 4:27). 우로부터, 예를 들어 부, 권세, 명예, 가장된 선으로 사람들 예리한 눈을 흐리게 만들고, 온갖 매력으로 치장, 사람들 그 계략에 포로되고 하나님 잊어 버리게 만든다. 좌로부터라 함은 가난, 수치, 경멸, 곤경. 역경, 곤란, 위축으로 마음 절망, 확신 소망 잃어 버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방자한 욕망이나 마귀 간계로, 우리를 대항해 싸움을 걸어오는 유혹들에 우리가 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21

그 분이 당신 손 붙잡고 격려하심으로 우리가 그 능력으로 힘얻어, 우리 마음 속 생겨나는 어떤 생각이든지 악한 대적 일으키는 모든 공격 맞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어떤 방향으로 우리 기울어지게 하든지, 우리는 선한 방향으로만 나아가기를, 번창할 때 교만하지 않고, 역경 속에도 절망하지 않게 되도록 기도. 시험들로 인해 경성 재촉받아야 할 필요 (약 1:2). 다윗이 시험 받기를 원한 것도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며, 주께서 매일 택한 자 시험 (창 22:1), 칭욕, 가난, 참사등 곤경들로 하시는 것도 이유.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22

그러한 하나님 방식은 사탄과 다르다. 사탄은 멸망시키고, 저주하고 욕하고 넘어 뜨리기 위해 시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자녀들 증명, 연단 위해 시험. 그들 육체를 죽이고 정결케 하고 소독하려는 것, 만일 이런 제약 없으면 육체는 방탕을 즐기고 도를 넘는 자기 자랑 빠진다. 사탄은 무장되지 않고 준비 안 된 자들 몰래 기습 넘어 뜨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주실 때 피할 길도 주셔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오는 모든 것 꾸준히 참아내게 하신다 (고전 10:13; 벰후 2:9).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23

28.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것. 어떤 유혹에도 정복당하거나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 능력으로 굳게 서서 우리 공격하는 모든 적대 세력들 맞설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일.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 보살핌과 안위, 보호입어 죄와 죽음, 지옥문과 마귀, 적 왕국에 의해 정복당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기도. 이것이 악에서 구하여지는 일.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24

여기서 주의 해야 할 것. 힘센 전사 마귀 대항, 또 그 공격 막아내는 힘 하나님께 구하는 것. 미쳐 날뛰는 사자 이빨 피하듯 (벰전 5:8), 원수 세력 피하도록 구해야 한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가운데서 건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 송곳니 발톱에 즉시 산산조각 찢겨 목구멍으로 삼키울 수밖에 없을 것.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위해 싸우시면 우리 잠잠히 “하나님 의지하여 용감히 행할 것” (시 60:12). 다른 사람들 원하면 자기 의지로 하게 버려 두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능력 안에서만 힘있게 설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자.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25

29. 이상 세 가지 간구, 우리 자신과 우리 소유를 하나님께 특별히 부탁하는 간구는 앞서 언급한 사실 분명히 보여준다. 즉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공적이어야 하며, 교회를 공적으로 세우는 일과 성도들 교제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공동으로 우리 빵과 죄 용서, 시험에 들지 말고 악한 자들로부터 구함 받기를 기도하기 때문. 이를 담대히 구할 수 있고, 또 구한 것을 받으리라는 확신 이유 있다.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26

일곱째 간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 6:13)

30.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확고하고 평온한 안식이다. 만일 우리 기도가 우리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 드러진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존전에 입을 열 수 있겠는가? 그러나 비록 미천하지만, 모든 칭찬을 잃어 버린 자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확신하는 것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서 결코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B. 주기도문 해설 - 27

마지막 “*아멘*”이 첨가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 얻기 원한다는 따뜻한 소원 표현. 우리 소망 확고한 이유는 모든 일이 이미 일어났고, 스스로 속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라 그것들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C. 기도의 실제 - 1

31.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또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 기도 형식 속에 제시되었다. 이 기도는 아버지께서 우리 선생으로 세우시고 또 그 한 분만 우리가 주목하고 들어야 할 분으로 세워주신 (마 17:5) 우리 최고 주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려준 기도 규칙이다.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영원한 지혜이시고 (사 11:2) 동시에 사람들 위한 위대한 모사이시다 (사 9:6). 이 기도는 모든 면에서 완전, 어떤 것도 첨가 불가.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 기뻐하시는 것, 우리 필요로 그가 기꺼이 주고자 하는 것.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C. 기도의 실제 - 2

그러므로, 이 범위 넘어 다른 것 하나님께 원하는 자들은 첫째 하나님 지혜 모독, 둘째 하나님 뜻 멸시, 자기 욕망 따라 헤맨다. 마지막으로, 믿음 없이 기도하므로 아무것도 못 얻는다. 이런 자는 하나님 말씀 곁여, 말씀에 대항.

그러나 또 우리가 이 기도형식에 얽매여 일점 일획 이라도 바꾸는 것 허락 안 된다고 생각함은 틀린다. 성경은 여러 가지 다른 기도들 많이 나온다. 그것들 사용 언어 다르더라도 같은 성령님 만드신 것. 우리가 주기도문에 요약방식 포함된 것 외에 아무 것도 기대하거나 추구해서 안 된다는 것이요,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뜻은 변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C. 기도의 실제 - 3

성경의 모든 기도, 경건한 이들 기도는 모두 주기도와 관련. 주기도와 같은 완전한 기도 없고 능가할 기도 없다. 하나님 찬양 위해 생각, 사람 행복 위해 생각할 것이 이 기도에 다 포함. 구조 정밀, 이 기도는 하나님 지혜가 무엇을 뜻하셨는지 가르치고, 필요한 그것을 보여주는 바로 지혜의 가르침.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C. 기도의 실제 - 4

32.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들고, 그를 앙망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살전 5:17), 그러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기도 여러 가지 방편 보조 받아야겠고, 우리 나태함 때문에 자극 받아야 할 필요 있다.

우리 각자 기도 실천 위해 일정한 시간 할당해 두어야 한다.

그 시간 되면 기도하고, 그 시간동안 우리 마음 전적으로 기도에 바쳐져야 하겠다.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C. 기도의 실제 - 5

아침 일어났을 때, 일과 시작 전, 음식 식탁, 하나님 축복으로 먹고 난후, 하루 휴식 취하려 할 때. 이런 시간은 미신적 으로서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지킬 것은 우리 연약함에 대한 일종 훈련이며, 연단과 반복적 자극위 해서이다. 우리 자신, 다른 사람들 곤경 당한 것 볼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께 발이 아니라 마음으로 달려가 열심히 기도하자. 또 자신이나 다른 사람 번창할 때,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손길 그 속에 역사하 심 증거하자.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C. 기도의 실제 - 6

33.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에,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기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어떤 특정 환경 묶어 두고, 그에게 어느시 장소 일하시는 방법등 지정해 주려는 의도가 혹시 없는 잘 살펴 보자. 우리 기도에서 하나님 어떤 법 만들어 드리려는 것도 아니며 어떤 조건 제시하려는 것도 아니기 때문.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C. 기도의 실제 - 7

모든 것, 하나님 하시는 대로 그의 방법, 그의 시간 그의 장소에서, 그가 선히 여기시는 대로 결정하시도록 맡겨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어떤 기도를 짜내기 전 먼저 그 뜻이 이루어 지기를 기도해야 하겠다 (마 6:10). 이 말로, 우리는 자신 의지를 주님께 복속시켜, 마치 고삐로 제재 가하듯, 우리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생각 버리고, 그 분 요청의 수행자와 지시자가 되도록 해드리는 것이다.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C. 기도의 실제 - 8

이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섭리 법칙이 자신을 다스리도록 허락하면, 즉시 우리는 참고 기도하는 법, 자신 욕망 자제한 채 꾸준히 주님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비록 그 분이 나타나지 않으실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인간 눈에 그가 잊어 버리고 있는 것 같아도 당신 정하신 때 그가 우리에게서 귀를 막고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 선포해 주실 것 확신하게 될 것. 우리의 상존적 위안은 이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 첫 번 간구에 응답지 않으시더라도 기진하거나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C. 기도의 실제 - 9

사람들이 하는 습관은 열심히 하나님 부르다가 첫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즉시 그들 도와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화나 있거나 적대적 관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희망 포기한 채 더 이상 기도 않는다. 또 하나님을 시험, 우리 악함에 지쳐 우리에게 화를 발하게 하시지 않게 해야 한다. 보통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특정 조건 아래만 계약 맺어 마치 하나님이 자기 욕심 섬기는 종처럼 오해하여 자기 법칙에 얽어 맨다.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C. 기도의 실제 - 10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바로 이행 않으시면 화내고 불평, 반항, 웅얼, 분격.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총 입은 자들에게 주시지 않는 진노를 가끔 내리신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만나와 함께 진노 입은 것처럼.

기도 후 아무리 기다려도 감각으로 기도열매 알 수 없을 때, 우리 믿음은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 확신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 속에서 부요, 곤경 속에서 위로 소유케 하신다.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C. 기도의 실제 - 11

비록 우리가 모든 일에 실패하여도, 하나님은 우리 버리시지 않는다. 그 분은 자기 백성 기대, 인내 저버리시지 않는다. 그 분만이 우리 모든 것 대신, 모든 선한 일이 그 안에 있고, 심판 날 그의 나라 밝히 나타날 때, 밝히 보여 주실 것이다.

신자들 인내심으로 지탱할 필요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결코 가벼운 시험으로 연단치 않고, 그들을 부드럽게 훈련 않고 그들을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신다. 그들이 하나님 달콤한 은혜 맛보기 전, 오랫동안 진창 속 빠져 있도록 허락.

III. 기도: 주기도문 해설 (154-185)

C. 기도의 실제 - 12

한나 고백처럼 “여호와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데다” (삼상 2:6). 곤경당하고 고독하여 이미 거반 죽게 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돌보시며 현재 불행을 끝나게 해 주시리라는 생각으로 인해 소생되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낙담 절망으로 달려갈밖에 달리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